

[illegible]

안동권역 낭송가들이 펼치는 시의 향연에
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.

시,
가을에 물들다

★ 이 리플릿은 초대장을 대신합니다 ★



Program

사회: 최 경 희

여는 무대 임성국(대금)

- ♪ 소리길(영화 '서편제' OST)
- ♪ 다향

시이미지화 선비정신, 어제와 오늘을 잇다 길재남, 김재순, 박연미,
신금식, 안미경, 정선옥, 황연숙

- 오우가 / 윤선도 詩
- 물처럼 흐르라 / 법정 詩
- 경(敬)자 바위 / 김이삼 詩
- 소나무 / 오세영 詩
- 저물녘 대나무 평상에 누워 / 박규리 詩
-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/ 김용택 詩

시이미지화 독립운동愛 빠지다 권금희, 김동욱, 배문환, 변미옥

- 만세로 가득 찬 사나이 / 허영자 詩
- 청포도 / 이육사 詩
- 꽃 / 이육사 詩
- 광야 / 이육사 詩

시노래 서울밴드

- ♪ 꿈 / 조용필 곡
- ♪ 새로운 길 / 윤동주 詩
- ♪ 흐린 날 / 나태주 詩
- ♪ 뱃노래 / 민요

시이미지화 아버지 권미경, 권오규, 김경희, 백상애, 윤서연,
정경숙, 최경희, 계하민(의성초)

- 정말로 그럴 때가 / 이어령 詩
- 달이 자꾸 따라와요 / 이상국 詩
- 아버지 / 나태주 詩
- 아버지가 보고 싶다 / 이상국 詩
- 아버지가 서 계시네 / 이종문 詩
- 아버지의 등을 밀며 / 손택수 詩
- 아버지의 손 / 장효식 詩
- 아버지의 눈물 / 이채 詩

퍼포먼스 안창민(팝핀마임)

시낭송 이권주

- 서문시장 돼지고기 선물집 / 배창환 詩
- 산중문답 / 조지훈 詩

시이미지화 어머니 김경숙, 강미혜, 유연숙, 최미경

- 엄마가 보고 싶다 / 조진현 詩
- 길 / 김기림 詩
- 그리움 / 김경숙 詩
-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/ 심순덕 詩

닫는 무대 김은태, 배재혁, 조재만(성악)

- ♪ 새야 새야 파랑새야
- ♪ Gimme! Gimme!
- ♪ 고맙소

